

인도: 박현수 목사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신앙고백 ----- 다같이
- 사도신경
- *찬양 ----- 다같이
 - 내 주의 보혈은 (찬254)
 - 은혜
- 참회의 기도 ----- 다같이
 - 요한복음 3:36
- 봉헌 ----- 다같이
 - 내가 가진 것 중에서
- 기도 ----- 김태중 장로
- 성경봉독 ----- 인도자
 - 로마서 6:1-23
- 특별찬양 ----- 찬양대
 - 내게 강 같은 평화
- 설교 ----- 박현수 목사
 - “그럴 수 없느니라”
- *찬양 ----- 다같이
 -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 *결단의 기도 ----- 다같이
- *축도 ----- 박현수 목사

*표는 일어서서
현금은 입구 현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Zelle 온라인현금: highland.giving@gmail.com)

P C A 하이랜드교회
한인중부노회

Highland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박현수 (Rev. Jason Hyunsoo Park, Pastor)

820 S. Milwaukee Ave. Vernon Hills, IL 60061 ☎(847) 634-6033
www.highlandchurch.com (web) highlandchurch1977@gmail.com (교회)
parkhyunsoo@hotmail.com (담임목사) [hellofromhighland\(EM Web\)](http://hellofromhighland(EM Web))

◀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귀을 가지십시오! ▶

저희 총회 안에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신 존경 받는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틀란타에서 수련회가 있을 때면 모셔서 세미나를 가지곤 하는데, 이번 신학생 수련회에 강사로 모시지는 못했지만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목사들도 교회 밖의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여기던 자들과 주로 교제하셨습니다. 창기와 세리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 중 누군가가 창녀와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중 누군가가 각종 범죄로 인해 옥살이를 한 전과 있는 사람과 자주 만나 교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귀을 가지는 것을 반겨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안전한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죄인을 불러 제자 삼는 것입니다 -박목-

◀ 광고 ▶

- 성찬식: 다음 주 6/7 예배 중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구역예배 안내: 2구역 (5/31 4pm 노재정 장로택), 3구역(5/31 4pm. 교회), 4구역(5/31 3:45pm. 교회)
- 당회: 오늘 5/31 주. 친교 후 당회장실
- 2/4 분기 제직회: 6/7 주 친교 후 본당
- 담임목사 휴가: 6/8-6/26 한국 방문
- 협력기도: 김영자(김택문), 이맹표, 이오덕, 남궁은자, 김형곤(김순자)
- 다음주 기도: 최의순 장로/ 금요일예배 기도: 서정아 권사
- 이번 주 봉헌위원: 이애순 집사, 다음주 봉헌위원: 김승연 권사
- 친교: 이번주- 김정수 장로 가정, 교회/ 다음주- 최치민 집사 가정
- 5월 뒷정리: EM/ 6월 뒷정리: 1구역

◀ 모임안내 ▶

- 금요일 찬양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 토요일 새벽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Youtube QT 방송: 매주 수요일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담임 목사 박현수
E.M 목사 정영준 (Jonny)
교사 Chris Choi, Jemimah Chae
시무장로 최의순 김태중
성가지휘 강수경
반주 Adam Kastler
찬양팀 최의순 최의설 강수경

◀ 후원 선교사 ▶

케냐 - 강충만
밀알 선교단 - 남성우
NOVO(NK) - 서예레미야
Pipeline Ministry - 심수영
REI - James Kang

*우리는 교인의 1%를 선교 보내는 1% 챌린지 교회입니다!